

본당 소식

2024년 4월 생활말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사도 4.33).”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시기 때 전례에서 바뀌는 부분,
“신앙의 신비여”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 구역 모임 및 회의
 - 금주 사목회의: 4월 14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 모임: 4월 28일 미사 후, 사제관

- ♣ 봉사자
 - 계단,화장실: 현상휘 루치아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15,50€ • 교무금 00,00€

전례 성가

입당 : 129(알렐루야 노래하자)
봉헌 : 510(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체 : 504(우리와 함께 주여), 173(사랑이신 예수여)
파견 : 130(예수 부활하셨네)

전례 봉사

이번 주일(14일)	다음 주일(21일)
1독서: 현상휘 루치아 2독서: 박지숙 레아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1독서: 김성진 다니엘 2독서: 이소정 다니엘라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강윤이 스텔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4월 14일 (백) 부활 제3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1독서 (사도행전 3,13-15.17-19)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3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야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15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17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18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19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제2독서 (요한 1서 2,1-5ㄱ)

1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3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5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있는 이 세상을 살피 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쟁을 멈추고 대화로써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 밀라노 한인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친교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